

P14. 농촌에서의 부부가족과 외딴가족에 대한 식생활 및 건강행동 비교

정금주, 조영숙, 이승교¹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¹수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도시에서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불규칙한 식사와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육체적 노동 감소로 인하여 오는 비만 등을 건강위험인자로 보는데 비하여 농촌주민은 건강과 식생활환경이 도시와 상이한 차이를 보여 준다. 농업노동이 과도한 육체 노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가정운영 책임을 혼자 맡은 외딴가족은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식생활과 건강관리의 관점에서 부부가 함께 사는 가족과 혼자 사는 가족의 식생활행동과 당면한 건강 문제를 바로 알고 건강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식생활관리와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농촌을 행정구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층화추출법으로 1870명을 선발하였다. 이 중에서 1451명은 부부가족이었고 419명은 외딴 가족을 이루었다. 조사는 조사지를 이용한 질문지법으로서, 시군단위 조사원을 선발하고 교육을 통하여 본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알게 하였으며 조사원이 질문에 답을 듣고 기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통계는 전체 결과의 빈도와 %, 점수화한 값은 평균을 나타내었고 통계분석을 통하여 χ^2 값과 F-값을 구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부부가족과 외딴가족의 농사 여부는 부부가족(76.3%)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외딴가족(49.8%)에서는 낮은 분포를 보였다. 대상자의 식구수를 비교하면 부부가족은 3.36명 외딴가족은 1.76명으로서 부부가족은 대개 핵가족을 이룬다고 볼 수 있으나 외딴가족은 혼자 또는 한 자녀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평균연령이 부부가족은 53.6세이고 외딴가족은 73.7세로서 연령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부부가족이 더 아침을 꼭 먹었으며 반찬수도 많았다. 영양보충제의 복용여부를 보았을 때 부부가족은 이전이나 현재 복용한 경우가 59.2%이고 외딴가족은 51.1%로서 약간 작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그 종류는 부부여부와는 무관하게 무기질비타민 제제가 가장 많았다(15.1%). 인스턴트식품은 전혀 안 먹거나 자주 먹는 비율을 합하면 외딴가족이 더 많았고, 간식은 부부가족에서 빈도와 그 종류에서 우수함을 보였으며 외식빈도도 부부가족이 월등이 많았다. 농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품의 수를 6가지로 하여 생산하면 2점 안하면 0점으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부부가족은 4.5점 외딴가족은 3.0점으로 부부가족이 생산하여 가정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된장 고추장 장아찌 등 저장식품의 가정에서의 가공에 대하여서도 같은 형태로 점수화하였을 때 부부가족이 10.2점 외딴가족이 8.6점으로 부부가족이 더 제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병조림 등 가공식품의 제조는 매우 저조하였다. 겨울 식품으로서 김장은 가족수로 나누어 비교하면 일인당 부부가족은 15.1

포기를, 외작가족은 16.6포기로서 외작가족이 좀 더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환자 여부를 보면 가족에 따른 차이가 없이 11.9%였고 건강행위로서 건강진단의 횟수를 점수화하여 표현하면 부부가족은 5.0 외작가족은 4.1점으로서 그 차이가 적었다. 온수 가능한 목욕탕이 부부가족은 82.1%가 구비되었으나 외작가족은 59%에 불과하였으며, 목욕빈도에서도 부부가족이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습관은 무응답빈도를 빼고 볼 때 부인에서 매일이나 주5회 빈도로 음주하는 습관은 외작가족에서 조금 높았다. 흡연에서도 부인의 경우 외작가족에서 피우는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농촌주민에서도 특히 외작을 이루는 가정의 식생활행동이 매우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음주와 흡연습관 등 건강관련 행위에서도 부족함을 보여, 이에 따른 가족 유형에 따른 건강향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